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어찌 그렇게 고달프게만 사십니까!

어떻게 맡겨 놓아야 하는 건지요

질문 인터넷 동영상에서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마음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기 주인공에 믿고 맡겨 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맡겨 놓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마음을 내기 이전은 바로 불성이라고 불가에선 하는데,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이다 이겁니다, 그게. 그래서 심봉과도 같다. 그래서 그거하고 내 현재 의식하고 계합이 된다면 50% 50%, 100%가 돼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찰나 생활을 그냥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만나는 거, 또 말하는 거, 엄마 만날 때는 자식이 되고 또 친구 만날 땐 친구가 되고, 동생 만날 땐 언니가 되고, 만약에 시집을 갔다면 남편 만났을 땐 아내가 되고, 자식 만날 땐 엄마가 되죠? 금방금방 그렇게 돌아가죠? 이게 찰나 생활이에요. 찰나찰나 돌아갑니다.

그게 금방 자동적으로 엄마를 만나면 딸의 행동을 하고, 남편이 들어오면 금방 "여보!" 그러곤 그냥 아주 자동적으로 아내 노릇을 하죠. 그러니깐 이 세상은 그렇게 묘하고 자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 시스템을 해 놓고 거기 입력을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죠? 나오고. 그래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입력을 해 놓으면 앞서 건 없어지면서, 현실에 입력이 되는 게 들어가면서 자꾸자꾸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즐겁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어찌 그렇게 고달프게만 사는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제 집을 은행에다 잡혔는데 그게 그만 돈을 못 갖다 줘서 넘어가게 생겼대요. 그래서 울고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도 자꾸 도와주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알았다고 그랬는데 "한 열흘만 있으면 돈을 이렇게 좀 꿀 데가 있는데, 그게 나오면은 꼭 그걸 갚고선 그 집을 찾아야 할 텐데, 이제 우리 식구는 다 죽습니다." 이럭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 주인공이 바로 컴퓨터와 같다. 그러니 그것이 전자의 그 인과로 인해서 업보가 돼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니깐,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거니깐 거기다가 '네가 한 거니깐 그걸 해결을 해 주는 것도, 증명을 해 주는 것도 너밖엔 없다.' 해결을 해야 증명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깐 "'증명을 해 다오. 이게 되는 게 증명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맡겨 놔라.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 은행에서 그걸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 넘기질 못하는가 했더니 서류가 없어졌대요, 은행에서. 그래 가지고 그걸 경매로 넘기질 못하고 있다가 이 사람네가 돈을 해 가지고 가니깐 그게 서랍 그 위 천장 있죠? 그 서류가 천장에 붙었다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돈을 갚고 집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성신은 체가 없기 때문에 만 개도 될 수 있고 천만 개도 되고 십만 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분신이. 납득 안 가죠? 옛날에 손오공 같은 거 보면 그 손오공이 똑같은 게 많이 이렇게 나오죠? 또 무술을 하는데 칼을 착 들고 이렇게 돌리니깐 칼이 수만 개가 되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게 대일승법이에요. 그러니깐 이 자체가 말로 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이론을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거는 가난하고 가난치 않고 배운 사람이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고 다 할 수 있는 공부예요. 근데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고 많이 배운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아요.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것이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니 뭘 합니까? 나오긴 뭐가 나옵니까? 힘이 없는 걸로 나올 수밖에요. 안 되는 걸로 나오는 거죠. 컴퓨터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림 · 최주현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싶어요

질문 스님들께서 늘 일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 보면 참선 공부하는 데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부러 생각을 할 때는 막연하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것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생활에 빠져 잊고 살게 됩니다. 올 새해에는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싶은데 막연하게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확실하게 느껴 보고 싶습니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생활을 떠나서는 참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 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선을 한다, 와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 모두가 앉으나서나 생활이 그냥 참선이기 때문에 그걸 한데 합쳐서 참선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앉아도 여러분이 앉은 것이고, 선 것도 여러분이 선 것이고, 눕는 것도 여러분이 눕는 것이고, 똥 누는 것도 여러분이 똥 누고, 먹는 것도 여러분이 먹고, 자는 것도 여러분이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부처는 없죠. 아니 부처만 없는 게 아니죠. 세상도 없고 가정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론이나 학설, 말을 잘해서 연구를 잘하고 또 교리를 잘 알아서 체계 있게 한다고 해도 참선이 아닙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마음을 잡고 발견해서 발전시키고 창조력을 기르고 생활이 과학인 줄 알고 그대로 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이 세상에 어린애를 낳는 것도 바로 과학입니다. 벼를 심어서 쌀을 만드는 것도 과학입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 놓는 것도 과학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과학 아닌 게 없습니다. 어느 거는 과학이고 어느 거는 과학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물리가 터지려면 이런 것도 좀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왜 스님네들이 허허벌판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그냥 풀섶에 그냥 앉아 있고 물이 흘러 내려가는 데 앉아 있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는 데 앉아 있기도 하고 높은 산골짜기에 앉아 있기도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감사한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쇳송을 했지만 '오종대은(五種大恩)을 알라,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생명 전체에 감사할 줄 알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내지 않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 · 수 · 화 · 풍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이 세상 풀 한 포기도 감사히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곤충 하나도.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면서 먹히고 먹으면서 이 세상에 거듭거듭 거쳐 나오면서 진화돼서 인간이 제일 나중에 났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모가 내 부모요, 어느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거듭거듭 거치면서 짐승의 부모도 됐다가 짐승의 자식도 됐다가, 곤충의 부모도 됐다가 곤충의 자식도 됐다가, 또 딴 부모의 자식이 됐다가 딴 부모가 되고…. 거듭거듭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또

☞ 18면으로 계속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